



환상적 연기 김연아가 21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세계피겨여자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 부문에서 우승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5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동메달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핸드볼 올림픽 재경기 남자부만 인정

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 ... 여자부는 28일 IHF 자체 예선서 본선행 도전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아시아지역 예선 재경기의 결과가 남자부만 인정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일 밤(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남녀 핸드볼 아시아 예선 재경기 결과를 남자부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자의 경우 작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기존 예선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경기 당시 일본을 꺾고 우승한 한국 남자대표팀은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했다. 반면 여자대표팀은 이달 말 열리는 국제핸드볼연맹(IHF) 자체 예선에 출전해 본선행 티켓을 다시 다투야 하는 처지가 됐다. IHF는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의 편과판정으로 열릴 작년 8월 여자 예선과 9월 남자 예선(일본 도쿄) 결과를 취소하고 재경기를 열 것을 명령했고, 재경기는 한국과

일본만 출전한 가운데 열려 남녀 모두 한국이 우승했다. 하지만 AHF는 CAS에 기존 예선 결과를 인정해달라며 IHF를 제소했으며, CAS는 스위스 로잔에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12시간 넘게 심리를 한 뒤 하루 만에 중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한핸드볼협회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해하면서도 "아직 IHF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 IHF가 CAS의 중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CAS 심리는 IHF와 AHF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만큼 IHF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인지 핸드볼협회는 21일 오후 긴급 강화위원회를 소집해 여자대표팀을 다시 꾸리기로 했다. 오는 23일 태릉선수촌에 소집돼 합숙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던 대표팀은 국내 선수로

만 구성돼 유럽이나 일본과 선수들을 다시 끌어모아야 한다. IHF 자체예선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독일 라이프치히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프랑스 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팀은 세계대회 상위 6개팀과 4개 대륙 예선 2위 4팀,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개 대륙의 예선 3위 2팀까지 총 12개 팀이며 4개 팀씩 3개 조로 나누어 풀리그를 치른 뒤 각조 상위 2팀이 올림픽 본선에 나가기 된다. 이번 CAS의 결정으로 기존에 짜여진 조는 모두 흐트러지게 됐는데, 한국은 작년 12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5위 프랑스와 함께 C조에 속하게 된다. C조에 속한 나머지 2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IHF는 참가팀 자격 순서를 정해 상위 순서부터 하나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를 짜왔는데 한 개 조에 같은 대륙 팀이 겹칠 경우 순서를 바꾸고 있다.

하계U대회 광주유치 기원 '범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내일 월드컵보조경기장

광주시생태체육협의회가 23일 오전 9시부터 광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2013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기원 '범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생체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호소하고 광주유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출발- 제2청사 사거리- 상무중사거리- 서구문화센터

사거리를 지나오는 약5.5km코스에 걸쳐 열리는 이번대회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조 및 태권체조가 열리며 참여자에게는 '2013 하계 U-대회 유치' 기원 모자를 제공한다. 또한 걷기 이후에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추첨을 통해 TV, 냉장고,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추첨을 한다. 김창준 광주시생체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치 열원 열기를 모아 1등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북한 축구 영웅 박두익 올림픽 성화 주자 뽑혀

오는 4월28일 평양에서 베이징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릴 북한측 최고령 주자로 1966년 런던월드컵의 영웅 박두익이 선발전 것으로 확인됐다. 고철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국 집행서는 20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북한측 성화주자 56명 가운데 최고령은 박두익이라고 밝혔다. 박두익은 1936년 12월생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70세인 것으로 소개됐다. 고 집행서는 박두익 외 다른 성화주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도여왕 계순희, 탁구선수 이분희, 마라톤여왕 정성숙 등 북한을 대표해 세계에 이름을 떨친 선수 출신들이 주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진통제 투혼' 김연아 동메달

세계피겨선수권 ... 지난해 이어 2회 연속 3위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생애 첫 '피겨 여왕'

김연아(18·군포 수리교)가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아깝게 동메달에 머물렀다. 김연아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스웨덴 예테보리 스칸디나비아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쳐 가장 높은 123.38점을 받았지만 쇼트프로그램 5위(59.85점)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해 합계 183.23점으로 3위에 그쳐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가 프리스케이팅 연기에서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뛰려다 넘어지는 수난 속에서도 멋지게 연기를 마무리하면서 총점 185.56점으로 생애 첫 '피겨 여왕'에 올랐다. 또 전날 쇼트프로그램 1위였던 카롤리나 코스트너(18·이탈리아)는 총점 184.68로 은메달을 땀다. 트리플 러츠 점프 실수가 역전 우승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첫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멋지게 댄 김연아는 연이은 더블 악셀(공중 2회전

반)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면서 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플라이닝 시트스핀에 이어 스파일럴 시트스핀을 우아하게 소화한 김연아는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완벽하게 뛰었지만 트리플 러츠를 싱글 점프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했다. 기본점수 6.0점의 트리플 러츠를 싱글(0.6점)로 처리하면서 무려 5.4점이나 까먹고 만 것. 트리플 러츠 실수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역전 우승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철 심장' 김연아는 기죽지 않고 나머지 연기 요소를 차근차근 펼쳐보이면서 관중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리 회원권

최저 '해탈권 회원권'비, 골프회원권에서 월드컵 경기장 권 모아레포트타운으로 확장바탕 하였습니다. 광주에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정답 문의 (062)351-0095

우즈, 8연승 해볼까 WGC CA챔피언십 1R 공동 4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8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우즈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골프장 블루코스(파72·7천 266야드)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CA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공동 선두 제프 오길비(호주)와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이상 7언더파)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첫날을 마친 우즈는 남은 라운드에서 언제든지 전세를 뒤집을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7개 대회에서 승률 100%를 기록한 우즈는 이 대회에서 여섯차례나 우승했고 4년 연속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뱅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도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잡아내 2언더파 70타로 공동 28위에 올라 첫날을 무난하게 끝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 가운데 열린 1라운드에서 우즈는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320야드를 기록했지만 페어웨이 적중률은 50%에 불과했고 퍼터도 28차례를 사용해 그쳐 그했다.



훈신의 역영 21일 오전 제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3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평영 100m 예선에서 국가대표 선수중이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토)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KIA : LG>(12 : 50·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삼성 : 롯데>(13 : 00·MBC ESPN)

▲07/08 프로농구<SK : KCC>(14 : 50·XSPORTS)

▲07/08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여자부<흥국생명 : 미정>(17 : 00·KBS N SPORTS)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 : 포츠머스>(21 : 30·MBC ESPN)

23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뉴캐

슬 : 풀럼>(00 : 00·MBC ESPN)<에버튼 : 웨스트햄>(02 : 00·MBC ESPN)

▲2008 리틀야구<대한민국 : 일본>(11 : 00·MBC ESPN)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KIA : LG>(12 : 50·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삼성 : 롯데>(13 : 00·MBC ESPN)

▲07/08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 (13 : 20·KBS1)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 : 현대캐피탈>(13 : 3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KTF : KT&G>(14 : 50·X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3차전<미정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07/08 네덜란드드리그<스파르타 : 페예노르트>(22 : 15·SBS스포츠)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 : 리버풀>(22 : 30·MBC ESPN)

24일(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첼시 : 아스날>(01 : 00·MBC ESPN)